"국도 연장지정 · 지방도 국도 승격"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임시회서 촉구
도내 전주-김제-새만금 구간 지방도 716호 국도 21호로 승격 6차선 확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사진)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국도 연장지정과 지방도의 국도 승격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광역 시·도 가운데 전북을 비롯해 강원, 충청 등 시급한 7개 시·도의 일반국도 연장과 국도 승격을 요구했다.

전북은 전주와 김제, 새만금 구간 19.7km의 지방도 716호를 국도 21호로 승격, 6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또 전국 광역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을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통일하고 사무처의 담당관 또는 과장 직급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건의했다.

현재 전국시도의회 사무기구를 관장하는 사무처장의 직급은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따라 서울시의회 1급, 부산시의회는 2급이며 타 시·도의회는 2~3급으로 규정돼 있다.

협의회는 "각 시·도의회 소속 직원 수와 의원당 사무처 직원 수, 의원 및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의 기준으로 볼 때 서울시의회만 1급 처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데다 시도의회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3급 공무원이 없어 집행부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연동형 비례제로 개혁을"

김종회 의원, 천막 농성 돌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설치된 민주평화당 천막 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 자리를 찾은 김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 선거제도에서는 매번 선거 때마다 50%가 넘는 사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로막히고 있는 것인데 민심이 천심인 만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려 한다"며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는 집권여당의 품격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진행한 전국 성인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42%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좋다'고 답했고, 29%는 '좋지 않다'고 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이 13%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성 기자

'연동형 비례제 도입… 왜 민심그대로 인가?'

평화당 전북도당, 9일 정동영 당대표 초청강연회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전주 노블레스 웨딩홀 3층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초청 '왜 민심그대로 인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청강연회는 현행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 선거제도 아래 매번 선거 때마다 50%가 넘는 표들이 사표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과 이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로막히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진정으로 민심그대로 정치적 의사표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청강연회에는 정동영 대표,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 수석 최고위원, 조배숙 전 대표, 김광수 국회의원,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원외 김호서 전주을 지역위원장, 임정엽 완무진장지역위원장, 지방의원, 당원·지지자 300여명이 참석해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영수증 이중청구 논란 "회계처리 강화할 것"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6일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일한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중복 제출해 국회 예산을 타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회계처리 강화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정책자료 발간비 및 발송료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이중청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더욱 엄격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 또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그 비용을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받아 지출한다"며 "편의상 국회의원 후원금 지출계좌에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보전받는 과정에서 회계절차 오류로 이중청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사무처에서 지원받은 의정활동 비용을 후원금 지출계좌 입출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것이지, 영수증 이중청구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잘못된 회계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절차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원 26명이 약 1억6000만원의 세금을 '영수증 이중제출'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본관 1층 무궁화실에서 O tvN 프리미엄 특강쇼 '어쩌다 어른' 인터뷰를 사전 녹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미혼모들이 존엄 지키며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

김정숙 여사, tvN 강연프로그램 '어쩌다 어른' 특별출연 희망의 메시지 전달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5일 미혼모들에게 "여러분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돌아볼 수 있도록, 엄마와 아이가 이 땅에서 존엄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tvN 강연프로그램인 '어쩌다 어른'에 특별출연한 김 여사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알면서도 용기를 갖고 귀한 아이들의 엄마가 돼 줘서 고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그러면서 "잊지 말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강연은 '세상의 모든 가족'을 주제로 진행됐다. '마당을 나온 암탉' 원작자인 황선미 작가가 강연자로 나섰다. 김 여사 인터뷰는 황 작가 강연 후 영상(VCR)을 통해 등장했다. 진행자인 배우 김상중 씨와 한부모가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미혼모를 향한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여사는 먼저 미혼모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미혼모라고 한다면 30살 이상의 미혼모도 많다"며 "만약 태어난 아이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왕따를 받을 때 어떡하느냐고 (미혼모들이) 이야기하는데 떨림이 전해져 마음이 참 그랬다. 지양돼야 할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미혼모들을 청와대 경내로 초청한 당시를 거론하며 "어린 친구들은 청와대를 방문한 가장 나이 어린 손님일 것"이라며 "아이들이 (경내에서) 뛰어놀고 엄마와 웃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니 청와대가 화목한 가정집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가 열리는 세종실을 미혼모들에게 보여준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미혼모들에게) 마음에 드는 자리에 가서 앉아보라'고 했다"며 "이 세상에 앉지 못할 자리는 없다. 다 앉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한부모가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아오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기념식 축사에서 "'한부모 가족의 날' 제정으로 우리 사회의 편견이 사라지고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 예산안 심사

홍성임 의원, "한글교육은 공교육 분야 필요시 교육청서 추진을"
문승우 의원, "도민 건강 증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 필요" 강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익산1)는 6일 전라북도의 2019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홍성임 의원(비례대표)은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 큰잔치, 우리말 가꿈이 지원사업 등 한글관련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한글교육은 공교육분야이고 필요하면 교육청에서 관련사업을 추진해야 맞다고 판단된다"며,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각자의 역할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문승우 의원(군산 4)은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생활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생활체육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동호인 단체 육성 등 관련예산 확대 및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